

Wylie의 접근 방법을 통한 문학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오동훈** · 신정엽***

Reading Literary Landscapes in Wylie’s Approach: The Case of *My Sweet City**

Dong-Hoon Oh** · Jungyeop Shin***

요약 : 지리학 분야에서의 문학지리학 연구는 오랜 기간 주요 연구 주제로 자리잡아왔으며, 인간주의 관점의 적용 외에, 신문화지리 접근의 도입으로 연구의 폭이 확대되었다. 신문화지리 관점의 핵심 주제인 경관은 문학 작품의 공간 독해에서도 유용하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의 경관 연구를 베일, 텍스트, 응시의 3가지로 분류한 Wylie의 접근 방법을 통하여 문학 경관의 맥락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대 도시 여성의 삶을 다룬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4가지 주제의 경관, 즉 결혼, 계급, 개인사, 소비의 경관을 중심으로 이 소설로 재현되는 현대 도시 공간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를 통해 문학지리학의 신문화지리 접근의 연구 폭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문학지리학, 신문화지리, 맥락적 이해,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

Abstract : Literary geography in geography research has been a major research area for a long time and its scope was extended due mainly to the rise and development of the so-called ‘new’ cultural geography perspective, as well as the long-lasting influence of the humanistic tradition. Landscape comprises a main analytical theme in the new cultural geography, and it can also be read and interpreted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literary works. On this Ba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ttempt to read literary landscapes through the lens of contextual understanding, a landscape interpretation method Wylie’s approach classified landscape as veil, text, and gaze. For this, this study selects *My Sweet City* written by Yi-hyun Jeong that depicts the lives of women in contemporary metropolis. This study is to make a contextual understanding about four types of landscapes including marriage, class, private history, consumption, for spatiality of literary work. We expect the extension of the research width of literary geography for new cultural geography approach.

Key Words : Literary geography, New cultural geography, Contextual understanding, Reading landscapes, *My Sweet City*

I. 서론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에 내재된 지리적 지식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분야이다. 문학 지리학의 연구 대상은 좁게는 문학 작품 자체이며, 넓게는 광고, 신문, 전문잡지의 텍스트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최지원 역,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3A2046771).

오동훈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fayewu8@snu.ac.kr)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1999에서 재인용). 문학지리학은 문학 작품 속의 공간 소재를 토대로 지리적 가치와 사과의 심화된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지역지리 연구에도 기여하여 왔다(Darby, 1948; Short, 1991; 이은숙, 1992; 김진영 · 신정엽, 2010; 심승희, 2012). 문학지리학 연구 영역은 실증주의, 구조주의, 인간주의 접근 등을 통해 확대되어 왔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문학 작품 속의 장소성, 공간 이미지 등의 연구가 인간주의 관점으로 한정되어 수행된 경향이 있다(이은숙, 1999; 김진영, 2011; 이양숙, 2014; 임정연, 2014).

한편 1980년대 이후 Cosgrove, Daniels, Duncan, Jackson 등에 의해 발전된 신문화지리는 전통 관점과는 다른 경관 연구에 주목한다. 세부 분야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지는 지리학에서의 경관은 신문화지리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인간의 문화·경제 활동 등을 통하여 구체화된 형태(Anderson *et al.*, 2003:269-281)로 정의되어 왔다. 신문화지리 관점은 인간이 활동하는 공간으로서의 경관을 중시하며, 그 경관에 내재된 의미는 '인간-사회-문화의 관계적 맥락을 중심으로 독해할 수 있다(Thrift, 1983; Cosgrove, 1984; 1989; Cosgrove and Daniels, 1988; Jackson, 1989). 이러한 관점은 문학 작품의 경관 독해에 유용하며, 문학지리학 연구 방법론, 성과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문학지리학 연구에서 신문화지리 관점의 연구 성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신문화지리의 접근을 통해 문학작품의 경관의 독해를 경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도시 여성의 삶을 잘 드러낸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06)을 대상으로 경관 독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러 신문화지리 관점 중 Wylie(2007)가 분류한 3가지 경관 독해 유형, 즉 베일(veil), 텍스트(text), 응시(gaze)를 중심으로 「달콤한 나의 도시」의 지리적 의미와 사고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II. 문학지리학과 신문화지리 접근

오랜 기간 국내의 문학지리학 연구는 지역, 장소, 경관에 대한 지리적 정보, 의미, 사고에 관심을 가져왔다(김진영 · 신정엽, 2010). 1950년대 이후 지역 지리를 중심으로 한 문학지리학 연구는 초기 문학지리학 발전에 기

여하였는데(Darby, 1948; Short, 1991),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의 여러 자연지리, 인문지리 특성을 담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후 인간주의 접근을 기반으로 문학지리학은 인간의 감정, 느낌, 상상력이 반영된 장소, 경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문학 작품의 본질적 속성에 이러한 연구 방법론은 상당 부분 일치하였으며, 문학지리학의 장소성, 공간의 의미, 이미지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다(김진영 · 신정엽, 2010).

인간주의 접근이 문학지리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하였지만, 이후 도시를 중심으로 한 경관의 내재적 의미, 맥락에 대한 연구 확대의 필요성이 추가되었다. 특히 문학작품 속 경관에 내재된 사회, 문화 측면의 해석이 중시되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발전된 신문화지리 관점을 통해 가능하였다. 전통적 문화 경관 접근과는 달리 경관의 내재적 의미를 강조하는 신문화지리 관점은 인간의 감정, 예술적 감각 등을 통해 경관의 해석을 보다 풍부하게 하며(Cosgrove, 1984; Cosgrove and Daniels, 1988), 특히, 문학작품에서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를 통해 경관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Pocock, 1988; Brosseau, 1994; Robinson, 1996; Wylie, 2007; Saunders, 2010).¹⁾

신문화지리 관점에서의 경관 해석은 '보는 방식(way of seeing)'의 경관(Cosgrove, 1984), 상징과 기호로서의 경관(Cosgrove and Daniels, 1988), 회화적 독해 방식의 경관 해석(Cosgrove, 1984; Daniels, 1989), 텍스트의 경관 독해(Duncan, 1990; Duncan and Duncan, 1991) 등의 방식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²⁾ 신문화지리 관점은 경관 독해에 권력, 계급, 인종, 젠더, 이데올로기 등의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경관의 물리적, 외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관에 내재된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McDowell and Massey, 1984; Jackson, 1989).

신문화지리 관점에서 특히 중시하는 경관 독해 방식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발전되어 왔는데(Cosgrove and Daniels, 1988), 이 중 Wylie(2007)는 주요 경관 독해 방식을 크게 3가지, 베일의 경관, 텍스트의 경관, 응시의 경관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베일로서의 경관 개념은 공간상에서 발생한 사건, 실제(reality)가 베일(또는 커튼)에 가려져 있으며, 표상적으로 희미하게 드러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때 시각적 재현의 특정 유형인 경관은 실체를 신비화하

고, 불투명하게 하며 가리거나 숨기고 변형되어 보이도록 한다. 따라서 사진, 실제 등은 사회 제도, 의례 등으로 구성된 경관에 대한 독해를 통하여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Cosgrove and Jackson, 1987; Cosgrove, 1989; Cosgrove, 1984; Cosgrove and Daniels, 1988; Wylie, 2007). 둘째, 구조주의 기호학으로부터 출발한 텍스트의 경관은 도시의 주요 건축물, 기념물이 큰 의미를 갖는 사건, 기억 등과 공간적·시간적으로 결부되며, 건축물, 기념물을 텍스트로 간주함으로써 경관의 의미를 제대로 독해할 수 있다³⁾는 방식이다(Duncan and Duncan, 1991). 경관의 텍스트는 사회의 조직에 대해서, 문화와 자연의 관계 등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내러티브를 전달하고, 공고화한다. 따라서 구조주의 측면에서 경관은 텍스트, 이미지의 형태로 담론과 의미를 포함하는 상태로 구성, 변형, 재현되기도 한다(Wylie, 2007).

셋째, 응시의 경관은 르네상스 시대 상류층을 위한 회화의 제작, 향유에서 시작되었지만(Cosgrove and Daniels, 1988; Wylie, 2007), 현대에서 ‘소비’ 경관의 독해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응시의 개념은 경관이 개별 관점(또는 일련의 개별 관점들이 누적된)에 의해 형성된 시각적인 공간이라고 가정하며, 이는 더 이상 총체적인 다양한 관점들의 결합인 지역적 관계(regional association)라는 종합적 개념을 거부한다. 따라서 개별 주체의 구현인 경관의 이해는 개별 차원의 응시(gaze)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Wylie, 2007). 현대 도시는 여러 개별 주체의 욕망, 관점이 반영된 개별 경관들로 구성되는데, 특히 상품, 서비스의 소비, 광고 등의 경관들은 ‘응시’의 방식을 통해 잘 파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랜드화된 상품의 소비 공간, 광고화된 경관 등은 응시의 방법을 통해 젊은 도시 여성의 욕망, 관점을 여러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⁴⁾(Bondi, 1992; Rose, 1993; Zukin, 1998; McDowell, 1999; Wylie, 2007).

이처럼 Wylie(2007)가 분류한 3가지 방식은 경관을 ‘인간-사회-문화’의 맥락적 관계에서 독해한다. 즉, 경관은 독립적인 공간만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서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를 형성하고 영향을 주는 문화의 상호 맥락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재된 맥락적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독해 방식을 문학 작품의 경관 해석에 적용한다면 작품에 대한 심층적 이해뿐만 아니라, 작품에 나타난 현대적

도시 경관의 올바른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III. 달콤한 나의 도시에 대한 경관 독해

1. 경관 독해 방법과 작품 소개

본 연구에서는 Wylie(2007)가 제시한 3가지 독해 방식을 국내 대표적인 칙릿(chick-lit) 소설⁵⁾인 「달콤한 나의 도시」에 적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에는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젊은 여성의 삶이 생생하게 녹아 있으며, 이 작품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경관들을 독해하기 위해 베일의 경관, 텍스트의 경관, 응시의 경관 방식이 적절하리라 판단하였다. 연구 대상인 「달콤한 나의 도시」의 스토리 전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크게 결혼, 계급, 개인사, 소비의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경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4가지 주제는 칙릿 소설의 공통 주제로서 젊은 도시 여성의 삶의 핵심이며, 도시 경관에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있다(정가연, 2007; 이정연·이기형, 2009; 이선옥, 2014).

첫 번째 주제인 의례로서 결혼의 경관은 베일의 경관 독해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간 관계와 사회 형성의 기초인 결혼의 경관은 사회 제도의 해석을 통해 가능하다(Duncan, 1996). 특히, 작품 속 주인공의 삶은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결혼 의례에 대한 주인공의 인식이 도시 경관에서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독해가 필요하다. 두 번째 주제인 계급의 경관도 베일의 경관 독해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계급은 도시 공간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만,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Jackson, 1989). 계급의 경관은 확고한 계급 사회였던 중세시대 뿐만 아니라, 자본화된 현대 도시에서도 그 사회를 반영하는 형태로 발견된다. 특히 현대 도시의 직장 공간 속에서 직장 내 지위에 따른 권한의 위계, 능력별 권한의 부여, 성별 차이에 따른 역할 위계 등은 새로운 계급 형성을 가능하게 하며, 이러한 현상은 차별화된 계급의 경관을 형성한다.

세 번째 주제인 개인사의 경관은 텍스트의 경관 독해 방식을 통하여 파악한다. 텍스트의 경관은 개인사(private history)의 지리와 관련되는데, 개인의 성장 과정, 추억을 담은 장소의 건축물, 풍경 등을 통해 경관 속에 담겨 있는 여러 사건과 추억을 독해할 수 있다. 도시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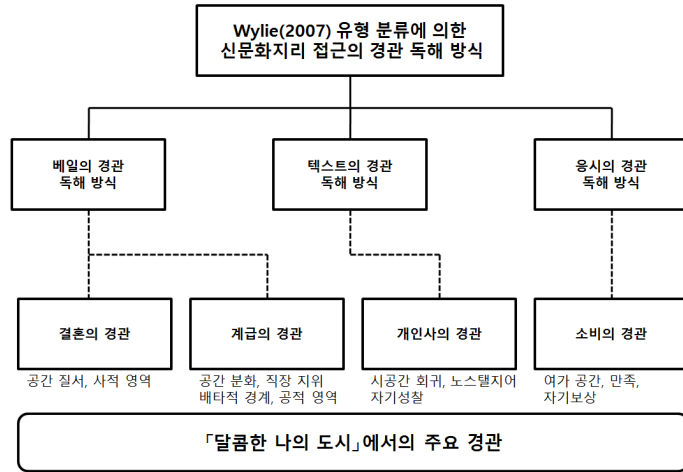


그림 1. 「달콤한 나의 도시」의 경관 독해 프레임

개인의 성장, 노스텔지어, 자기성찰 등 복합적 감정, 경험들은 공간, 장소, 건축물 등과 결합되어 경관으로 인식된다.⁶⁾ 개인사의 경관은 주거 공간, 일상의 골목길, 버스 안에서 바라본 풍경 등에서 인식될 수 있고, 텍스트 속에 녹아 있는 개인의 복합적인 감정, 경험이 사회적 관계와 사건들 속에서 어떻게 심층적·지리 경관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지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비의 경관은 응시의 경관 독해 방식을 통해 파악된다. 현대 도시의 소비 경관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일상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된 현대 도시에서는 개인의 욕망이 소비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소비의 경관 속에서 개인의 욕망을 해석할 수 있다(Bondi, 1992; Majury, 2013). 또한 생계를 위한 소비 활동을 넘어 친교, 여가 문화를 즐기기를 위한 소비는 새로운 소비 경관의 특징이기도 하다. 소비 경관은 브랜드, 광고 등을 통해 점차 물질화된 형태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 자기만족, 보상을 위한 소비행위가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젊은 여성이 여러 도시 소비 경관들에 대한 인식은 응시의 방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 대상인 「달콤한 나의 도시」는 정이현의 첫 번째 장편소설로 도시적 삶의 코드를 내세워 31살, 직장생활 8년차의 오은수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미혼 여성 주인공 오은수의 결혼, 가족, 친구, 일, 연애, 일상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2005년 10월~2006년 4월까지 총 126회에 걸쳐 조선일보

에 연재된 것을 모아 2006년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인터넷 교보문고 홈페이지). 이 작품에 담겨 있는 ‘결혼, 일상사, 소비’의 주요 경관은 주인공 오은수가 거주, 근무, 친교 활동을 하는 도시의 여러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고, 도시의 여러 현상, 행동 양식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소설은 젊은 도시 여성의 관점에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소비 패턴과 일, 사랑, 그 속에 감추어진 욕망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요 공간 배경은 서울이다. 작품 전개에 따라 일부 다른 도시들이 등장하지만,⁷⁾ 작품 전체 줄거리는 대부분 서울을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특히 주요 거점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대표적으로 마포(오은수의 집과 직장), 대학로(태오와의 만남), 장충동 ○○호텔(영수와의 맞선 장소), 압구정동(재인, 유희와의 친교 장소), 역삼동(유준의 오피스텔), 청담동(재인의 웨딩 촬영), 남산 타워(영수와의 데이트 장소) 등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주인공 오은수는 연하인 태오와의 사랑에서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경험하며, 그녀가 결혼상대로 결정한 영수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절친한 친구 재인의 모습에서 ‘결혼’이라는 통과 의례의 무게에 대해 항상 고민하지만, 정작 자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작품의 전체 흐름에서 나타나는 도시경관들은 유기적인 내용 전개를 위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경관에 대한 주인공 오은수

의 인식을 독해하는 것은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를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다.

2. 젊은 도시 여성의 경관 이해

1) 베일: 결혼의 경관

전형적인 칙릿 소설인 이 작품은 젊은 여성의 연애, 결혼이 핵심 주제이다. 현실에서도 긴밀한 이 두 가지 주제는 다양한 방식의 경관으로 젊은 여성인 주인공에게 인식된다. 현대에서도 핵심 의례로 여겨지는 결혼은 도시 여성에게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도 하며, 이러한 의미들은 색다른 '결혼의 경관'의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는 4가지 유형의 경관, 즉 맞선 장소, 웨딩촬영지, 결혼식장, 신혼집에서의 경관을 중심으로 젊은 여성의 경관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목할만한 결혼 경관의 유형은 맞선 장소의 경관이다. 연하 남자를 사귀고 있던 주인공 오은수는 직장 상사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맞선 제의를 받고 자신도 기존 사회 제도와 물질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또한 현대 도시의 평범한 모습의 여성으로 자신을 생각하던 그녀는 호텔 커피숍이라는 전형적인 맞선 장소에서 배우자의 외모를 통해 결혼의 조건을 고정 관념화하는 경관 인식을 보여준다. 그녀에게 있어 맞선 장소에서의 결혼의 경관은 삶의 목표로 나아가는 중간 과정으로서 작은 의례일 뿐이다.

웃은 어떤 걸로 입어야 하지? ○○호텔에 이어 곧바로 대학로까지 가야 한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맞선 후) 맞선용 옷차림으로 (애인) 테오를 만나야 하다니 보통일이 아니었다. 두 장소에 다 어색하지 않을만한 옷을 필사적으로 골라야 했다... 토요일 오후 두 시 ○○호텔 커피숍 안에는 첫 만남을 진행 중인 커플이 여럿이었다. (선보는 남자) 김영수의 외모 경쟁력은 그 남자들 가운데 압도적 1위라고 할 수는 없을지라도 2위권을 다룰 정도는 되어 보였다. 5위도 힘들어 보이는 남자와 마주앉은 여자의 테이블을 지나, 김영수가 기다리는 자리로 도도히 걸어들어갈 때는 아주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다. (정이현, 2006:76-77)

두 번째 유형은 웨딩촬영지의 경관이다. 주인공은 고정 관념화된 결혼 절차의 하나인 웨딩 촬영 솜에서 친구 재인이 곧 '결혼'이라는 통과의례에 도달할 것이라는 사

실을 실감한다. 웨딩촬영지에서의 경관 묘사에서, 주인공은 친구의 현재 얼굴과 과거 외모를 떠올리면서 세월의 무상함과 사회 제도로서의 '결혼'을 거쳐야 한다는 의례의 무게감을 표출한다. 또한 웨딩촬영지에서의 경관을 통해 결혼 제도를 통해 바뀌게 되는 인생의 변화를 생동감있게 느끼게 된다.

여덟 시까지 ○○동 뷰티숍으로 오라는, 신부 하제인양의 분부는 거짓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재인이 신부화장 중인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도 가슴 한구석이 계속 시큰거렸다. 오늘의 주인공 재인은 대형 거울로 둘러싸인 방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다... 가끔 친한 친구의 완벽한 맨얼굴과 조우할 때 흠칫 놀라게 되는 것은 왜일까. 여고 시절부터 내 머릿속에 각인된 정보에 따르면, 재인의 피부는 알맞게 삶아 껍질을 사사삭 벗겨놓은 메추리알처럼 매끄럽고 보드라워야 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 우리가 열일곱 살에서 서른한 살이 될 때까지, 가장 엄청난 속도로 팽창한 것이 설마 얼굴의 탐구명은 아니리라 믿는다.

(정이현, 2006:131)

세 번째는 결혼식장 신부 대기실의 경관에 대한 인식이다. 오은수는 친구 재인의 결혼식장에서, 밀려드는 상실감, 회의감으로 인해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만, 마치 엄숙, 숭고한 의미일 것 같던 결혼의 경관이 오랜 기간 사회가 형성한 제도의 구태의연한 모습이었음에 실망한다. 이 결혼식장 대기실의 경관을 통해 주인공이 느끼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젊은 도시 여성에게 어떻게 다양한 감정과 변화를 느끼게 해주는 지를 이해할 수 있다.

재인의 예식이 거행되는 곳은 시내의 작은 호텔이었다... 식당 입구에는 양가의 부모들과 신랑이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신부 대기실은 번잡스러웠다. 한복을 입은 일군의 아주머니들이 재인의 주위를 둥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단아하고 아름다운 신부였다. 일주일 전, 다 그만두겠다고 내 방에 찾아와 대성통곡하던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였다. 재인은 담담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오늘 예쁘네." 내가 해야 할 말을 그녀가 먼저 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재인의 눈에는, 표정이 없었다. 잔잔한 일렁임도 없이 정지된 그 눈동자에는 설렘과 두려움, 갈망과 공포의 감정을 넘어서는 자의 고요한 체념이 깃들여 있었다. 영화 「런어웨이 브라이드」가 떠올랐다. 그녀의 손을

남아재 도망가려면 지금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일 것이다...
비로서 그녀가 저편의 어마어마한 세계로 건너간다는 사실이
실감나게 와 닿았다. (정이현, 2006:197-198)

네 번째는 신혼집의 경관에 대한 인식이다. 주인공 은수는 친구 유희와 함께 재인의 일산 신혼집을 방문한다. 일산의 아파트 단지는 중산층의 주거 공간이자, 신혼살림을 시작하는 재인의 경제적 지위를 상징하는 사물화된 경관으로 작품에 등장하고 있다. 신혼집을 방문하는 두 사람의 손에 들린 선물(세제)과 신혼집 내부에 꾸며진 신집살림들은 전형적인 '결혼'의 경관을 인식하도록 한다. 은수는 신혼집 내부 공간에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부재한 따스한 감정의 존재를 아쉬워하며 결혼의 경관이 가지는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고 있다

재인의 신혼집은 일산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한 손에 무거운 ○○타이를 든 채, 죄다 비슷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파트 동 사이를 몇 바퀴나 빙빙 돈 뒤에야 겨우 집을 찾을 수 있었다. 문을 열어준 건 먼저 와 있던 유희였다. 그녀의 품에 ○○타이를 던지며 투덜거렸다. “죽는 줄 알았네. 세상의 아파트들은 왜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실내는 신혼집답고, 또 한편으로 신혼집답지 않았다. 모든 가구와 가전제품은 반들반들 윤이 나는 새것인데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행했다. 나는 텅 비어 있는 거실 벽을 가리켰다. (정이현, 2006:224)

주인공 오은수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이며 현대 도시의 보통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과정에 직면해 있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통과의례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형적 맞선의 장소인 호텔 커피숍, 웨딩 촬영, 결혼식, 신혼집, 결혼 정보회사의 방문과 다양한 결정을 통하여 물질화된 사물과 행동화된 양식으로 결혼의 경관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관 인식은 전형적인 현대 도시 여성의 시각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결혼의 여러 모습을 경관으로 상상하는 장면은 결혼이 가지는 지리적 공간의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는 문학 작품 특유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2) 베일: 계급의 경관

작품 속 주인공 오은수는 8년차 직장인으로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권한, 결정의 위계를 계급의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신분'이라는 이름으로 사회 제도의 근간을 이루었던 '계급'이 현대 도시에서는 '직급'과 '능력'이라는 명칭으로 그 모습이 바뀌었음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 오은수가 근무하는 편집대행사의 평범하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면들은 노동을 매개로 하여 계급의 경관이 살아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계급의 경관을 직장, 회의, 회식의 공간성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였다. 첫 번째는 직장 공간에서의 계급의 경관이다. 직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급을 가진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이다. 직장에서는 직급으로 계층화된 사람들의 공간 배치와 사물들이 계급의 경관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사물화된 사무실 의자를 통해 계급의 경관은 은유적으로 상징화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계급 구조에서 직장 상사가 못마땅할 때의 상황은 계급의 경관을 행동화된 양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무용 의자에도 계급이 있다. 그 자명한 진리를 미처 모르던 순진무구의 시절이 가끔은 사무치게 그림다. 우리 회사의 의자는 모두 네 개의 등급으로 나뉜다. 사장실 의자, 이사실 의자, 부장들의 의자, 그리고 과장급 이하 평사원들의 의자. 목 받침이 없으며 우레탄 재질의 팔걸이를 가진 중국산 사무용 의자에 앉아 나는 종일을 보낸다. 가끔 외근이 있긴 하지만, 한 달에 사나흘 정도는 마감이라는 명목 아래, 아침 아홉시부터 자정이 넘을 때까지 엉덩이를 뭉개고 있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사무직 노동자의 평균 노동 시간에 비해 결코 적은 양은 아닐 것이다. (정이현, 2006:54)

두 번째는 직장에서 흔히 벌어지는 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급의 경관이다. 회의 자리에 직급별로 고정되어 있는 좌석, 발언권의 빈도, 눈치 주는 자와 눈치 보는 자 사이의 긴장감 등은 계급의 경관을 고착화시킨다. 은수는 '계급'의 경관을 회의를 통해 재인식하고 있는데, 직급에 따라 주어지는 관습화된 계급 구조에 순응하는 주인공과 달리, 직장 후배 이민정이 직장 상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서슴없이 개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형화된 계급 경관과는 상반된 계급의 경관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 불안감을 느낀 은수는 자신에게 닥칠 약간의 불행을 감지하면서도 관습화된 계급 구조에 대해 피해질 수 없음을 깨닫는다.

관리자들이 회의에 집착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자리일뿐더러, 잔소리를 통해 죄증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는 알량한 권력욕일 맛보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제 생각에는요, 솔직히 이 논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엇, 이게 무슨 소리지? 별안간 정신이 번쩍 든다. 진원지는, 내 옆자리의 후배 이민정이다... 두려움 없이 불의에 항거하는 어린 후배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야 옳겠으나, 나는 고개를 내리간 채 애꿎은 테이블의 나뭇결만 눈으로 더듬었다. ‘짬밥’은 위대하다. 사회생활 칠년 차의 연륜으로 나는 신상에 닥쳐올 위협의 그림자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안이사는, 까마득한 평사원의 도발을 여유롭게 받아 넘길 만큼의 고수가 아니었다. 그의 술 없는 눈썹이 지렁이처럼 꿈틀했다. 이민정은 자신이 불러일으킨 사태의 파장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똑같은 표정으로, 한쪽 다리를 꼰 자세를 풀지 않았다. 안이사의 팻발 선 눈동자가 이민정을 스윽 지나 내게 머무는 것이 느껴졌다. 다음 차례는, 나왔다. (정이현, 2006:56-57)

세 번째는 근무 시간 이후 회식 공간에 드러나는 계급의 경관이다. 계급에 반항하는 후배의 행동이 언제나 자신에게 불행을 던져주는 것만은 아니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진 이민정의 당당한 요구는 은수에게 작은 행운을 가져온다. 평소 이민정의 당돌함에 다소 불만을 가졌던 은수도 이 순간만큼은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결과도 포커페이스인 사장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은수는 다시 한 번 행동화된 양식에 의한 ‘계급’의 경관을 인식한다.

“오늘 메뉴는 오대리가 정해보지.” 언젠가 전체 회식 때 사장에게 딱 찍혀 메뉴판 앞에서 킁킁거리고 있을 때 이민정이 명쾌하게 던진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다. “저는 생등심 먹을래요!” 포커페이스인 사장은 꺾꺾 웃더니 늘 시키던 삼겹살 대신 한우 생등심을 20인분 주문했다. 어급니로 고깃점을 씹으면서, 나 그때 그녀에게 얼마나 감탄했었는지 모른다. 고마워했었는지 모른다. (정이현, 2006:60)

작품 속에서 오은수가 인식하는 계급의 경관은 현대 도시의 직장에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공간의 형태와 의미를 갖는다. 회의 시간과 회식 자리에서의 결정의 권한, 퇴근 시간이 압박할 무렵에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사무실 풍경, 면접 장소에서의 긴장감은 직장인이

라면 누구나 인식해 보았을 계급의 경관이다. 사무실 내의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의자’라는 사물화된 형태는 계급의 경관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계급의 경관이 ‘노동’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표현되어 있을 뿐, 젠더의 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적인 양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3) 텍스트: 개인사의 경관

개인사의 경관은 다수의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모티브이자 테마이다. 특히, 다수의 여성 작가의 소설 작품에서는 개인사를 통하여 지리적 공간의 감수성을 이야기 전반에 풀어나가며, 작품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달콤한 나의 도시」도 이러한 경향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일상적인 경관들이 평범함과 진부함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여기서는 개인사의 경관을 3가지, 즉 주거 공간, 통근 경로, 추억의 장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주거 공간의 경관 인식이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가족과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자신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가지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독립된 도시의 주거 공간은 익명성을 가진 공간이며 낯선 공간이기도 하다.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살기 시작하지 여섯달째다. 독립의 명분은 뚜렷했다. 경기도 분당 신도시의 집에서 마포에 위치한 회사까지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는 것...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나만의 방’을 가지지 못할 까닭이란 전혀 없어 보였다. (정이현, 2006:38)

지구에는 모두 몇 개의 도시가 있을까? 나는 상상한다. 1975년 5월 25일 오후 두 시,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귀퉁이의 작은 산부인과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태어난 나를... 아득하고 머나먼 이국 도시들의 이름이라면 앉은 자리에서 수십 군데를 딸 수 있다. 스톡홀름의 나, 뉴욕의 나, 팔라툼프르의 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나. ‘그녀’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국의 도시에서 나고 자란 그녀가 설마 서울 구석의 오은수씨만큼이나 별 볼일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겠지? 그것만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심정이다. 나를 닮은,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는 이름 모를 그녀는 적어도 내가 매일 맞닥뜨리는 이 지긋지긋하고 구질구질한 일

상보다 수십 배는 더 달콤한 생을 구가하고 있어야 한다.
(정이현, 2006:49-50)

이사 온 날부터 자신이 거주하게 된 원룸의 이름이 어색하다고 느꼈던 주인공 오은수는 원룸을 연극 무대에 빗대서 상상하고 이를 통하여 '삶=연기'일 수 있다는 행동화된 양식으로 개인사의 경관을 인식한다. 한편, 원룸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도시의 방에 담겨 있는 의미와 타인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한다. 도시인의 '고독'을 '도시'의 경관과 '시골'의 경관으로 극명하게 대조시킴으로써 성찰의 깊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이 집에는 모두 스물 한 개의 방이 있다. 대외적으로 각각의 방은 공평하게 15평형. 하지만 복도와 주차장 같은 공용면적, 또 얼마간의 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 평수는 채 아홉 평이나 될지 모르겠다. 만약 이 집이 연극 무대 위의 세트라면 어떨까?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인형의 집처럼 벽의 한쪽 면이 땡 뚫려 있다면, 저 멀리 객석에 앉은 관객은 스물한 개의 똑같은 방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겠지. 가로로 일곱 줄, 세로로 세 줄씩 나뉜 칸칸마다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이면 참 기관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게 맡겨진 배역은 '205호 여자다.'

(정이현, 2006:120-121)

도시의 방이란 무엇일까. 시골마을에서는 이웃에 가려면 언덕을 넘고 개울을 건너야 한다. 그러나 도시의 방과 방 사이, 집과 집 사이는 다닥다닥 붙어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물리적 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 더 외로운 느낌을 아느냐고 강변한다. 그래서일까. 그들은 언제나 나를 외롭지 않게 만들어줄 나만의 사람, 여기 내가 있음을 알아봐 주고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갈구한다. 사랑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그가 내 곁에 온 순간 새로운 고독이 시작되는 그 지독한 아이러니도 모르고서 말이다.

(정이현, 2006:180)

두 번째는 통근 경로의 경관 인식이다. 아침 출근길과 저녁 퇴근길에서 마주하는 일상은 개인사의 경관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매일 경험하는 도시의 일상 경관들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하나로 이어주며, 다양한 텍스트 요소들이 경관, 장소 등에 은유적으로 녹아 있다. 특

히 칠팔퀴 돌아가는 도시 직장인의 출퇴근의 경관은 정서적으로 삭막하고 비인간적인 도시의 경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서울은 과잉의 도시다. 아침방송의 여성 기상 캐스터는 밤사이 내린 눈으로 서울의 교통이 마비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올해 들어 최초의 일이라. 강남대로의 이른 출근길 풍경을 담은 CCTV 화면이 이어졌다. 자동차들이 거북이 걸음으로 진군하고 있었다. 간밤의 적설량은 고작 3cm. 넘치는 것은 권태로운 수사(修辭)만이 아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 단 1초의 실수로 잉태되는 태아,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구불구불한 버스 노선, 무채색 반코트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걸어가는 표정 없는 중년 남자, 바람에 필력이는 모델 주차장의 녹색 천막, 입술 부르튼 아르바이트생이 바코드를 찍어주는 24시간 편의점, 의도된 냉정들과 과장된 친절들. 모든 것이 흘러넘친다. 그리고 문패 없는 콘크리트 건물들도 곳곳에 숨어 있다. 내가 사는 이 집 '스노우 펠리스'도 그중 하나다.

(정이현, 2006:119-120)

아침 출근길. 어느 때처럼 지하철은 칙칙푹푹 지루하게 선로를 달리고 있다. 뒤로 가지도, 하늘을 날지도 않는다. 네모난 상자에 뻑뻑이 들어찬 시든 굴처럼, 혹은 나무귀짝에 겹겹이 줄 맞춰 누운 죽은 갈치처럼 실려 나는 영혼없이 이러지리 흔들리고 있다. 운 좋게 좌석을 차지하고 앉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이 칸의 승객들 대부분은 인간의 존엄권 수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그저 견디고 있을 뿐이다... 누군가의 불타는 의지를 무력화시키고픈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 출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 지하철에 태운 다음 뱅뱅 돌려보라.

(정이현, 2006:50)

세 번째는 추억의 장소에 대한 경관 인식이다. '노스텔지어'가 깃들여 있는 개인사의 경관은 오은수가 결혼이라는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결혼상대 김영수와의 데이트 장면에서 잘 드러난다. 오은수는 테이트 장소인 남산 타워에서 자신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더듬으며 개인사의 경관 속에서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영수와의 데이트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추억의 경관'을 통해 도시의 기억을 사적 공간의 의미로 환원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남산 타워는 1975년 개통되었다. 내가 태어난 해였다. 일반인에게 관광 전망대가 개방된 것은 1980년대 초반. 우리 가족 역시 유행에 뒤질세라 어느 일요일, 그곳으로 나들이를 갔었다. 젊은 아버지와 젊은 엄마, 장난꾸러기 사내아이였던 오빠, 토실토실한 부끄럼쟁이 꼬마였던 나, 이렇게 네 명이서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속내를 알고 보면 훑아가는 바나나 같은 집구석이지만 어쨌거나 남들 눈에는 중산층 도시 핵가족의 행복한 나들이로 보였을 것이다. 그 전날 밤 중간 규모의 부부 싸움을 치렀던 부모가 무슨 이유에서 오빠와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는지는 모를 일이었다. 포니 투택시 뒷좌석에 실려 가면서, 혹시 고아원에 버려지는 건 아닐까 가슴을 졸였던 기억만 흐릿하다. 택시가 꼬불꼬불한 산길을 지나 당도한 곳은, 멀리서 올려다보기만 하던 남산타워 앞이었다. 그날 찍힌 사진 속에서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나는 한 손에 솜사탕을 든 채 어설피게 웃고 있다. 전망대 5층의 레스토랑은 모던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다. 몇 가지 안되는 메뉴들은 다 값이 비쌌다. (정이현, 2006:372)

이렇듯 오은수가 사는 원룸, 아침 출근길, 남자 친구 태오의 상점을 찾아가는 도시 변두리의 골목길, 상점 속에 진열된 낯익은 배열의 물건들, 영수와의 데이트 장소인 남산 타워에서의 경관은 '일상다반사'와 '노스텔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일상에서 느낀 풍경과 성찰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과거의 추억을 통하여 투영된 경관은 단순한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을 알린다. 이렇듯 개인사의 경관은 건축물, 대중교통, 도로(길)에 스며들어 있던 도시 전체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로 환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결혼할 상대인 영수의 집을 찾아 부산이라는 낯선 공간에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투영하여 다음과 같은 경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부산 날씨는 서울보다 따스했다...역 광장 한구석에서 기타를 둘러멘 남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불우 이웃을 도우시다' 라고 쓰인 현수막이 고풍한 미풍이 살랑살랑 흔들렸다...이 남쪽 도시가 천국보다 낫설게 느껴졌다. 택시는 좁고 꼬불꼬불한 도로를 가다 서다 반복했다. 한때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란 적이 있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골목들은 동경의 대상이었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라면, 지켜온 내 본모습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택시 뒷자리에 실린 채 미로 같은 길들을 통과하는 동안, 다 속절없는 꿈임을 알겠다. 여기든, 거기든, 다 똑같다. 인간은 제 누추한 육체가 머무는 곳에 환멸을 느끼도록 세팅된 존재다. (정이현, 2006:407)

4) 응시: 소비의 경관

현대 도시의 여성에게 '소비'는 경제활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생활과 문화 측면에서도 자신을 표현, 위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소비'는 연애, 결혼, 친교 활동 등 다양한 일상에서 구체화된 경관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소비는 상표, 메뉴판, 광고 등을 통해 상징화된 경관이 되며, 이러한 소비의 경관을 통해 도시 여성의 자기 위로, 자기 보상을 독해할 수 있다.⁸⁾

첫 번째 소비 경관은 연애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연애'를 위한 소비는 고전적인 감동의 경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연인인 은수와 태오가 서로 준비한 선물은 '크리스마스'라는 계절의 느낌과 어우러져 낭만적 분위기를 자아낸다. 은수가 태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은 도시의 정형화된 남성의 스타일을 표현한 반면, 태오가 준비한 선물은 그의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다. 은수는 태오의 선물을 조금 부담스러워 하지만, 이 모든 '연애'를 위한 소비가 고전적인 감동의 경관으로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고민하다가 폴로랄프로렌에서 민트색의 단정한 옥스퍼드 셔츠를 샀다. 태오의 흰 피부와 짙어울릴 것 같았고, 무엇보다 그의 자유분방한 패션 스타일에 서서히 변화를 주어가고 싶었다. 허리선을 끈으로 묶는 쥐색 정장 코트에 파시미나 머플러를 두른 30대 여자와의 애인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태오 입장에서 이 정도쯤은 기꺼이 맞추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태오 역시 큼지막한 쇼핑백을 들고 있었다. 내용물을 꺼내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 그것은 하트 모양의 커다란 쿠션이었다. 하트 모양 테두리를 따라 두 겹의 연분홍색 레이스가 달려 있고 쿠션 한가운데에는 빨간색 글자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4ever love.' 포에버 러브. 영원한 사랑. 나는 그 과중한 문장을 엉거주춤한 자세로 받아 안았다.

(정이현, 2006:143)

한편, 재인이 태오의 존재를 알게 된 순간, 은수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감지한다. 곧 재인

은 은수, 태오 두 사람을 위한다는 구실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변북로변의 고층 카페로 둘을 안내한다. 고층 카페에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경관에 걸맞게 그 곳에서 주문한 와인, 치즈는 은수의 급여를 고려하면 꽤 비싼 가격이다. 은수에게 화려한 도시의 밤 풍경은 와인과 모듬치즈라는 사물화된 형태의 경관을 통해 분수에 넘치는 소비로 인식되며, 자신이 이를 지불할 능력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진다.

재인은 자기가 알게 된 기념으로 근사한 곳에 가서 축하주를 마셔야 한다고 우겨댔다. 웬지 재인과 태오를 한 공간에 두고 싶지 않았지만 고집 부리는 재인을 따라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강변북로변의 고층 카페로 갔다. 『보〇』 최신호를 넘기듯 우아한 자세로 메뉴를 훑어 내리는 재인의 모습을 보며, 나는 지갑 속에 신용카드를 잘 챙겨왔던가를 헤아렸다. 그녀가 지목한 와인은 한 병에 칠만 원이 넘는 것이었다. 안주로 주문한 모듬치즈 가격까지 합하면 십만 원에 육박할 액수였다. (정이현, 2006:178)

두 번째 유형은 자기 보상의 경관이다. 오은수가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방문한 백화점의 경관은 자신을 위한 물질적, 정신적 보상의 경관이다. 생활에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물화된 형태를 소비하는 자신의 행동화된 양식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지난 삶을 위로하고 보상하려 한다.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소비의 경관은 영수증, 거래명세서와 같은 작은 종이에 기록되어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백화점과 같은 도시의 상징이자 소비 경관의 집합체를 매개로 인식되기도 한다.⁶⁾

회사 앞 큰길에 선다. 매일 다니던 길이 참으로 낯설다. 버스를 타고 명동의 백화점으로 간다. 평일 대낮의 백화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리둥절해진다. 평소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파니 매장으로 너무도 당당히 걸어 들어간다. 목걸이를 골라 든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옆으로 기우뚱 스러져 있는 이 목걸이의 이름은 ‘오픈하트’다. 기울어진 하트가 내 목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웨이트리스가 “몇 분이세요?”라고 물어왔다. “혼자예요. 저 혼자예요.” 나는 가만히 되뇌었다. 안심 스테이크가 포함된 디너 코스를 주문하고, 하우스와인도 한 잔 시켰다. 나를 위해 이 정도의 작은 선물은 해줄 수 있었다. 비통할 것도 없고 죄책감을 가질 것도 없다. 오랫동안 나는 온전한 내 힘으로 나를 빌어 먹었다. 그저 쉬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침내 설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은 내 자발적 의지의 산물이다. 와인은 향긋했고 스테이크의 육질은 보드라웠다. 나는 태연한 포즈로 고기를 푹푹 씹었다. 눈물 같은 것은 나지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다고, 간신히 생각했다.

(정이현, 2006:291-292)

은수가 인식하는 ‘소비’의 경관은 도시의 많은 사물과 행동들이 ‘화폐’라는 수치화된 기준에 따라 가치 매겨지는 현대 자본주의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소비’의 경관이 전통적 경제지리에서 강조해 왔던 생산과 입지의 관점으로부터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드러낸다. 영수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부산을 방문하는 은수는 자신이 지불하는 교통비의 가격과 맞먹는 사물들과 뉴스를 떠올린다. 은수의 이러한 인식은 현대 도시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공간에서라도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소비’의 경관이기도 하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왕복 요금은 9만 원이 조금 못 된다. 9만 원으로 레이스가 찰랑거리는 블라우스를 살 수도 있고, 친구들을 불러내어 근사한 밥 한 끼를 쓸 수도 있다. 한 중국 남자가 경매 사이트에 매물로 내놓은 ‘영혼’이 낙찰된 가격도 우리 돈 9만 원이다. (정이현, 2006:407)

작품 속 주인공 은수는 도시에 살면서 생각하였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인생 설계에 대한 번뇌, 가족, 친구, 직장동료를 포함한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나하나 자신이 머물고, 지나치고, 스쳐가고 바라보는 모든 공간에 투영하여 제시한다. 또한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도시 속에서 그동안 많은 생각에 젖어 지냈지만, 그동안 살아온 인생 경로에 대하여 여전히 긍정적 판단을 하고, 미래의 그녀가 도시에서 자신감을 갖은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지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빗속은 생각보다 아늑하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팔을 앞으로 흔들며 걷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멈춘다. 저편의 정거장, 길들은 여러 갈래로 뻗어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다만 가장 먼저 도착하는 버스에 무작정 올라타지는 않을 것이다. 두 손을 공중으로 내밀어 본다. 손바닥에 고인 투명한 빗물을 입술에 가져다 댄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서울의 맛이다.

(정이현, 2006:441)

위에서 살펴본 「달콤한 나의 도시」의 주인공이 인식한 경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경관 독해를 통해 남성 중심적인 시각의 탈피를 엿볼 수 있다. 기존의 사회 제도, 가치와 관련한 남성 중심적 질서에 대한 비판, 변화에 대한 사고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 한편, 기존 제도 속에서 여성의 삶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여성의 시각에서 제도를 바라도록 한다. 이러한 모습은 작품 속 주인공이 결혼의 경관을 인식하는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기존의 제도를 남성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나 해체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순응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자신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여성학과 문화이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스트페미니즘의 성격이 여성의 도시경관 인식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경관 인식의 무장소적 성격도 다수 드러나고 있다. 주인공이 직장에서 느끼는 계급의 경관은 작품에도 잠시 언급되는 뉴욕, 파리, 스톡홀름 등의 대도시 어디에서나 인식될 수 있는 경관이다. 개인사의 경관으로 나타나는 일상다반사, 자기성찰, 노스텔지어의 감정은 개인의 경험이 녹아 있는 도시의 어느 장소에서나 인식될 수 있는 '인식의 보편적 성격'을 보여준다. 한편, 소비의 경관에서는 글로벌화된 상표, 상품들,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일상화된 사물들을 통하여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인식할 수 있는 경관의 특징을 상당 부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에는 급격한 도시화 과정과 TV, 인터넷 등의 매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소마케팅에서 빈번히 활용하고 있는 장소의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는 '본질주의적 장소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상당 부분 뛰어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는 소비의 경관을 보상의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긴 시간의 노동을 위로하는 해외여행, 욕망을 실현하는 인터넷 쇼핑, 실직의 아픔을 달래주는 백화점 방문 등은 모두 생활을 위한 필수적 소비가 아니다. 그러나 소비를 통해 여성이 자신을 새롭게 '생산'하고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소비의 경관을 '보상의 경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도시의 소비는 물질주의라는 부정적인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여성의 경관 인식을 통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암시한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문학 작품의 배경이 되는 지역, 장소 등 다양한 관점을 도입하여 유용한 지식을 추출하고 그 의미를 독해하는 문학지리학 연구를 Wylie(2007)가 정리한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방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의 중요성을 지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시도로써, 지난 1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명맥을 이어 온 문학지리학의 경관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완성하려는 노력의 첫 걸음이다. 문학지리학의 발전이 지리학의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분명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논리실증주의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문학지리학의 정체성 확립을 저해한 더 큰 원인은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현재까지의 이어져 온 문학지리학 연구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다 지리적으로 내실 있는 연구가 계속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대 도시 소설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칙릿 소설 중 국내 대표작인 「달콤한 나의 도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4가지 경관을 통해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를 심층적으로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시도는, 문학 작품의 본질적 속성인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심분 살리면서도 문화지리학의 여러 관심사를 작품의 핵심을 아우르는 주제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국내 칙릿 계열 다수의 소설 작품이 주로 도시 여성의 '결혼, 일, 소비'라는 3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점(정가연, 2007; 이정연·이기형, 2009; 홍윤정, 2012)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프레임을 다른 칙릿 소설 작품의 지리적 경관 독해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는 문학 작품의 핵심 주제를 추출하여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를 완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다.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문학지리학 연구가 실증주의, 구조주의, 인간주의 등 여러 철학적 기반에서 발전되어 왔지만, 문학 작품 속 지리적 지식의 맥락적 이해가 다소 미흡하였던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방법론은 문학 작품을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론적인 측면에서 이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기존의 철학적

기반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시도가 문학 지리학 연구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註

- 1) 예를 들면, Robinson(1996)은 Charles Dickens의 「올리버 트위스트(Oliver Twist)」를 당시 런던의 경관에 반영된 산업혁명의 물결로 인한 외재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소외받은 등장인물들의 내재적 모습까지도 종합적으로 읽어 내어, ‘인간-사회-문화’의 관계론적 접근을 통한 문학지리학의 맥락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 2) Duncan(1990)은 경관이 다양한 공동체 담론을 통해 하나의 텍스트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계급·지위·인종·젠더 등의 관점을 통해 경관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도시 경관 독해의 전환점이 된다. 이후 Anderson (1988)의 차이나타운 연구, Knox(1991)의 도시경관이 지닌 아이콘(상징) 요소의 탐색 연구 등으로 발전하였다.
- 3) 바르트(Barthes)는 에펠탑의 경관을 예시하면서 “그것은 파리의 중심이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공적 기억을 담은 건축물”로서 평가하였다(Johnson, 2004:316에서 재인용).
- 4) 남성 시각에 근거한 회화 작품 독해에 대한 비판(Rose, 1993), 소비 공간에서 여성의 욕망이 반영되는 현상에 대한 평가(McDowell, 1999), 남성 중심의 도시경관에서 여성의 지위 상승과 역할(Bondi, 1992), 심미적 경관이 도시의 공공 공간에 여성 이미지로 흡수되는 사례(Zukin, 1998) 연구 등을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 5)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chick’와 문학의 약자인 ‘lit’가 합성된 칩릿은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보편적인 현상으로, 도시 여성의 삶과 욕망을 여성의 관점에서 표출한 문화현상으로 볼 수 있다. 칩릿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Doris Dörrie의 「파니 핑크(Keiner Liebt Mich)」, 1999년 소설로 출간된 후 2001년 영화화된 Helen Fielding의 「브리짓 존스의 일기(Bridget Jones’s Diary)」를 들 수 있다. 국내 작품으로는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06), 서유미의 「쿨하게 한 걸음」(2007), 백

영옥의 「스타일」(2008), 정수현의 「압구정 다이어리」(2008)등을 꼽을 수 있다(이정연·이기형, 2009; 홍윤정, 2012; 이선옥, 2014).

- 6) 이는 공적 역사가 담겨 있는 기억의 경관(landscape as a memory)과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공적 역사가 사적 역사로 환원되는 인식의 전환이기도 하다(Duncan and Duncan, 1991)
- 7) 예를 들어 주인공 은수의 부모님 집인 경기도 분당, 친구 재인의 신혼집인 경기도 일산, 영수의 비밀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장소로 부산이 공간 배경으로 일부 등장한다.
- 8) 정여울(2011)은 여성과 남성의 소비 인식이 본질적으로 다름을 2000년대 한국 소설, 즉 백영옥의 「스타일」(2008), 정이현의 「달콤한 나의 도시」(2006), 김중혁의 「약기들의 도서관」(2000), 김훈의 「강산 무진」(2000)의 4개 작품의 비평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여성 소비 자기충족’, ‘남성 소비 취향의 완성, 삶의 정리’ 등으로 요약하였다. 그러나 소비가 인간 삶의 지배정도가 강해진 것은 여성, 남성 모두 동등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김진영, 2011, “인간주의 지리학 관점에서의 장소성 프로세스를 적용한문학지리학 연구: 소설 「토지」 속 평사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신정엽, 2010, “문학 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공간 논의에 대한 재고찰,” 지리교육논집, 54, 1-15.

심승희, 2012,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문학에 접근하는 방식,” 문학교육학, 37, 87-124.

오동훈, 2017, “문학지리학에 있어서 신문화지리의 경관 독해: 「달콤한 나의 도시」를 사례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흥기, 2009, “영어권에서 문화지리학의 발전과 연구동향,” 문화역사지리, 21(1), 13-30.

이선옥, 2014, “한국적 칩릿의 특성 —정이현 소설의 자기 풍자,” 여성문학연구, 31, 187-211.

이양숙, 2014, “한국문학과 도시성,” 국문학연구, 30, 113-138.

이은숙, 1992, “문학지리학 서설 —지리학과 문학의 만남

- , 문화역사지리, 4, 147-166.
- 이은숙, 1993, “문학작품 속에서의 도시경관 —채만식의 탁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 1-27.
- 이은숙, 1999, “1930년대 북간도 이민소설의 나타나는 조선이민의 공간이미지,”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81-87.
- 이정연·이기형, 2009, “‘칙릿 소설, 포스트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초상,” 언론과 사회, 17(2), 87-138.
- 이지연, 2012, “한국 칙릿의 전개 과정과 특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연, 2014, “여성의 해외 거주 경험과 탈경제적 공간 인식 —손장순과 김지원의 유학, 이민 서사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3, 361-386.
- 정가연, 2007, “한국의 칙릿 담론에 관한 연구: 재현과 현실 사이의 여성들 —성별화된 자기계발서와 그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7(12), 625-637.
- 정여울, 2011, “소비의 젠더 정치 —200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소비’의 풍속도—대한 고찰,” 인문학연구, 17, 83-104.
- 정이현, 2006, 「달콤한 나의 도시」, 서울: 문학과지성사.
- 진종현, 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 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557-574.
- 최지원 역, 1999, “문학과 지리학: 지리학적 연구의 함의,” 지역문화연구, 5, 131-147.
- 한지은, 2013, “문화지리학의 경관 연구와 경관의 텍스트성,” 안과밖, 34, 126-146.
- 홍윤정, 2012, “한국형 칙릿(Chick-lit) 소설 연구 -정이현, 백영옥, 서유미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erson, K., 1987, The idea of Chinatown: The power of place and institutional practice in the making of a racial categor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77(4), 580-598.
- Anderson, K., Domosh, M., Pile, S., and Thrift, N. eds., 2003, *Handbook of Cultural Geography*, London: SAGE.
- Atkinson, D., Jackson, P., Sibley, D., and Washbourne, N. eds., 2005, *Cultural Geography: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New York: I.B. Tauris & Co.(이영민·박경환·진종현·이무용·박배균 역, 2005, 「현대문화지리학: 주요 개념의 비판적 이해」, 서울: 논형).
- Bondi, L., 1992, Gender symbols and urban landscap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6(2), 157-170.
- Brosseau, M., 1994, Geography’s litera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3), 333-353.
- Cosgrove, D., 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Totowa: Barnes & Noble Books.
- Cosgrove, D., 1989, Geography is everywhere: Cultural symbolism in human landscape, in Gregory, D. and Walford, R. eds., *Horizon in Human Geography*, London: Macmillan, 118-135.
- Cosgrove, D. and Daniels, S. eds., 1988, *The Iconography of Landsca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iels, S., 1989, Maxism, culture, and the duplicity of landscape, in Peet, R. and Thrift, N. eds., *New Models in Geography vol.2*, London: Unwin Hyman. 196-221.
- Darby, H.C., 1948, The regional geography of Thomas Hardy’s Wessex, *Geographical Review*, 38(3), 426-443.
- Duncan, J., 1990, *The City of Text: The Politics of Landscape Interpretation in the Kandyian Kingdo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ncan, J. and Duncan, N., 1991, Ideology and bliss: Roland Barthes and the secret histories of landscape, in Barnes, T. and Duncan, J. eds.,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London: Routledge, 18-37.
- Duncan, N. 1996, Renegotiating gender and sexuality in public and private spaces, in Duncan, N. ed., 1996, *BodySpace: Destabilizing Geographies of Gender and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127-144.
- Gamble, S., 2001, Postfeminism, in Gamble, S. ed., (*The Routledge Companion to Feminism and Postfeminism*, London: Routledge, 36-45.
- Jackson, P., 1989, *Map of Meaning*, London: Routledge.
- Johnson, N., 2004, Public memory, in Duncan, J.,

- Johnson, N., and Schein, R. eds.,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316-327.
- Knox, P., 1991, The restless urban landscap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hange and the transformation of metropolitan Washington, DC,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1(2), 181-209.
- Majury, N., 2013, Economic landscape, in Johnston, N., Schein, R., and Winders, J. eds., *The Wiley-Blackwell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Chichester: John Wiley & Sons Ltd., 161-172.
- McDowell, L., 1999, *Gender, Identity, and Place: Understanding Feminist Geographie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여성과 공간 연구회 역, 2010, 「젠더, 정체성, 장소: 페미니스트 지리학의 이해, 파주: 한울).
- McDowell, L. and Massey, D., 1984, A woman's place..., in Massey, D. and Allen, J. eds., *Geography Matters! A Rea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8-147.
- Pocock, D.C.D., 1988, Geography and literatur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1), 87-102.
- Robinson, B., 1996, Charles Dickens and London: The visible and the opaque, *GeoJournal*, 38(1), 59-74.
- Rose, G., 1993, *Feminism and Geography: The Limits of Geographical Knowledge*, Cambridge: Polity Press(정현주 역, 2011, 「페미니즘과 지리학: 지리학 적 지식의 한계, 파주: 한길사).
- Saunders, A., 2010, Literary geography: Reforging the connection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4(4), 436-452.
- Short, J., 1991, *Imagined Country: Environment, Culture and Society*, London: Routledge.
- Thrift, N., 1983, Literature, the production of culture and the politics of place, *Antipode*, 15(1), 12-24.
- Valentine, G., 1993, (Hetero) Sexing space: Lesbian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everyday space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11(4), 395-413.
- Wylie, J., 2007, *Landscape*, New York: Routledge.
- Zukin, S., 1998, Urban lifestyle: Diversity and standardisation in space of consumption, *Urban Studies*, 35(5-6), 825-839.
- 인터넷 교보문고 홈페이지, www.kyobobook.co.kr/product/detail
- 교신 : 신정엽,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이메일: geoshin@snu.ac.kr)
- Correspondence: Jungyeop Shin,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hin@snu.ac.kr)
- 투 고 일: 2017년 4월 8일
심사완료일: 2017년 4월 18일
투고확정일: 2017년 4월 18일